

청년분과위원회 제2회 임원회의 개최결과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김대섭)에서는 지난 3월 27일(월)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2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우유 덤핑판매 문제와 관련 메이저유업체 방문활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우유 덤핑판매(끼워팔기, PB제품 등)로 인해 우유의 가치 저해 뿐만아니라 쿼터 삭감 등의 형태로 그 손실을 결국 농가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와관련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4월 중 메이저유업체 방문 활동 전개와 더불어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분과위 조직활성화를 위해 협회 시군지부 설치와 연계하여 청년분과 시군대표 선임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경기도 임원을 도대표, 부도대표 체제로 확대·개편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년분과위원회는 지난 1, 2월 낙농조합총량제 운영지침 제정관련 성명서 발표, 진흥회 항의방문 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낙농기반 위협하는 우유덤핑 강요 즉각 중단하라

- 대형유통업체 횡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미래 한국낙농을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도를 넘어선 우유 끼워팔기, 미끼상품 판매 강요 등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건강 증진에 중요한 우리우유가 어떻게 대형유통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인가!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보면 분통을 금할 길이 없다. 가격파괴행사로 우유를 미끼상품으로 내 걸면서 정상가의 50%가격에 판매토록 하는가 하면, 우유 PB(자사상표) 제품을 정상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하게 하거나, 1+1 혹은 1+2 끼워팔기 강요가 이어지면서 우유의 시장 가치 몰락은 물론 낙농가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유통체가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농가쿼터 삭감 등의 형태로 결국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술 더떠 아전인수(我田引水)적인 이같은 반농민적인 작태는 유통체간의 출혈경쟁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우유 덤핑판매로 인한 낙농기반 붕괴는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우유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자립 기반마저 잃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우유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단순히 낙농가의 생존권 차원을 떠나 쌀과 더불어 범국가적으로 지켜야 할 식량자원이다.

이에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대형유통업체의 막가파식 우유덤핑판매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유통체와 유가공협회에서도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묵살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당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 3. 27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